

중국 도시화에서의 성중촌과 천주교

- 산시성 타이위안 시를 사례로 -

DUAN YU (훗카이도대학)

1. 연구 배경

현대사회의 종교윤리나 종교단체는 일반인의 타자나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사회사업을 전개해 소셜 캐피털을 구축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사쿠라이, 2012:6-7). 반면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는 지역·계층의 이동에 따른 지역 간·계층 간의 격차를 낳아 사회적·정신적 박탈감을 높이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관계의 창출·유지·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급속한 도시화를 배경으로 생긴 새로운 촌락형태-성중촌과 천주교를 다루고 현대 중국사회의 종교단체가 창출하는 소셜 캐피털을 고찰한다.

성중촌은 지리적으로 도시 내부에 위치한 농촌이 주위 도시로부터 영향을 받아 주민들이 도시적 생활양식에 어쩔 수 없이 적응해야 하는 행정 구역으로, 1990년대 이후 대, 중 도시에서 볼 수 있게 된 농촌적 요소와 도시적 요소가 혼합된 지역사회이다(연, 2016:2). 성중촌은 2006년 기준으로 중국 국내에 5만개가 있으며 5천만 명 거주하고 있다. 다수의 대도시에서 그 면적이 시가지 총면적의 10%~25%를, 인구는 도시 총인구의 25%~30%를 차지하고 있다(손·성소·대서, 2011:469). 마을이 성중촌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토지 소유권의 문제·마을 주민의 생존과 발전의 문제·인간관계의 대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사회의 불안정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성중촌에서는 이러한 문제 해결이 중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반면 중국의 90%의 천주교회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천주교회가 중국 농촌의 사회도덕과 윤리에 일정한 규범 기능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도시지역보다 앞서 천주교의 성장이 보이고 있다(손, 2011:32). 따라서 성중촌 문제에 대한 천주교의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퍼트남에 따르면 소셜 캐피털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개인 간의 연결, 즉 사회적 네트워크 및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호수성(互惠性)과 신뢰성의 규범이다(퍼트남, 2006:14). 또, 가타오카에 따르면 호수성이나 신뢰라는 가치는 사회적 협조 행동이나 이타적 행동을 낳아 사람들을 연결시켜, 선순환적 네트워크로서 기능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호수성과 신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트워크의 유효유이며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심적 작용이다(가타오카, 2014:138).이러한 지적은 당연히 천주교회에도 해당된다.

Lozada(2001)는 광둥 성의 농촌지역에서는 천주교회 건립, 종교의례, 결혼식, 장례식, 도로 건설 등 구체적인 생활 장면 조사를 통하여, 공동 천주교 신앙이나 정체성에 의해 형성된 규범과 윤리가 마을에서는 네트워크, 신뢰성, 호수성의 큰 기반이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산시 성과 허베이 성 농촌의 천주교회에 대해 고찰한 손(2011)의 연구에 따르면, 마을에서는 천주교회를 통한 일상 활동은 전통적인 혈연의 틀을 뛰어넘어 일반 마을 주민을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에게 정신적 지지를 제공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며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종교단체에 참가함으로써 사람들 사이에서 소셜 캐피털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종교의 이념에 의해 지탱된 호수성·

신뢰성은, 가까운 타인에 대한 상호 부조 의식이 되고, 그것이 확산됨에 따라 사회 통합의 견고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 야마기시에 따르면 안정적인 커미트먼트 관계 속에서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사회적 환경에 직면한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서로 안심할 수 있는 커미트먼트 개발을 자발적으로 형성하려고 한다(야마기시, 1998:76). 그러나 도시화 과정에서 성중촌의 사람들은 생존수단으로서의 토지를 상실하고 경제활동은 개인화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친족·지역조직에 대한 의존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 가족이나 지역 공동체의 숙박에서 벗어나, 기존 마을을 통합하는 혈연과 지연이 흔들리고 있으며, 규범의식과 질서 원칙도 상실되는 큰 사회 변동에 직면해 있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 불확실성이 있는 사회에서, 신뢰는 그 말의 의미를 발휘하여 새로운 커미트먼트를 개발하는 움직임이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경제활동·인간관계·사회구조 등에 계속해서 큰 변동을 맞이하고 있는 성중촌의 천주교는 어떠한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의 호수성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소셜 캐피털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싶다.

3. 조사 내용

3-1 조사 방법 및 조사 대상자

조사 방법은 참여 관찰과 인터뷰이다. 우선 천주교회의 장로에게 교회의 역사와 현주소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장로는 오랫동안 A마을에 거주하고 있고 마을과 교회 사정에 대하여 잘 아는 인물이다. 또 천주교회의 성직자(주임사제나 신부)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성직자에게 A교회의 조직구조, 신자 구성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교회를 고찰할 때 예배활동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추려 반구조화 면접을 진행하였다. 주요 질문의 주제는 성중촌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관심사 및 천주교의 영향이라는 두 가지면이다.

3-2 A 교회의 역사와 현주소

1870년에 프란체스코회 소속 이탈리아인 선교사 그레고리오 그라시는 A교회를 성립하였다. 당시 교회는 양호시설을 마련하여 여자아이와 노인에게 음식과 주거를 제공하였다. 또한 교당에서 식사반을 설치·운영함으로써 신자들의 식사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중화민국시대에는 교회는 양로원, 양호 시설을 세웠고 당시에는 보기 드문 초등학교도 갖추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후, 교회는 정부가 공인하는 ‘중국 천주교우애국회’에 들어가 있다. 하지만 1951년 A교회에서 삼자혁신과 반삼자혁신 간 투쟁으로 인해 집단 항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1957년부터 사회주의 교육운동으로 모든 교회 활동이 정지되었다. 문화대혁명으로 교회 강당은 홍위병에 의해 파괴되고 양호시설도 무너졌다. 1982년 종교부흥정책이 강조되고 교회가 중국 천주교 주교단에 가입하면서 종교 활동이 재개되었다. 몰수된 땅을 반환시키고 젊은이들이 성직에 몸을 바쳐 새로운 신부와 수녀가 대거 탄생하였다. 현재 교회는 주임사제 1명, 신부 1명, 수녀 3명, 장로 1명이 있으며 천주교 신자 1900명이 있다.

A교회의 관리기관은 교회관리위원회라고 불리며 주임사제, 신부, 장로로 구성되어 있다. 교회관리위원회는 위원회 하에 청소년교양팀·전통행사 개최팀·방문팀·재산관리팀·기도팀이라는 다섯 개의 팀을 설치하고 관리하며 교회의 일상 활동을 지도한다. 주임사제는 교회관

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교회에 관한 모든 사항을 토의 또는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를 소집하는 역할을 한다. 또 신부는 전통행사 개최팀, 기도팀, 방문팀이라는 세 팀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장로는 청소년 교양팀과 재산관리팀의 일상 업무를 책임진다.

3-3 A 교회가 창출하는 소셜 캐피털

A교회는 주로 위의 다섯 개의 팀을 통해 소셜 캐피털 역할을 발휘하고 있다. 우선 청소년 교양팀의 일은 매년 여름방학에 교회의 6~12세 어린이 신자를 대상으로 천주교 지식을 보급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수업의 선생님은 A교회의 신직원(神職員)이 담당한다. 이러한 교양활동은 38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천주교 신앙을 전승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교회는 청소년 교양팀을 통해 신자들은 어릴 때부터 천주교 신앙을 쌓고 공동의 천주교적 세계관과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전통행사 개최팀의 일은 주일예배, 축일숭배와 같은 행사를 전개하는 데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자들에게 연락, 헌물 준비, 교회당 청소, 합창단 소집, 외부 성직자 초청이다. 그러한 활동을 통해 이주노동자들이나 타지역 이주자들은 전통 행사나 일요일 예배 때 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 모두의 교류의 장이 된다.

한편 방문팀의 일은 교회가 모든 신자들의 신앙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 20명의 세례 신자들이 신자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명의 신자가 10개의 조로 나누어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신자들을 찾아가 이들의 어려움을 경청한 뒤 기도팀과 재산관리팀에 보고하여 도움을 주기도 한다. 교회는 방문팀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소통하게 되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질 수 있다.

기도팀의 일은 방문팀의 보고를 받은 뒤, 매주 금요일 밤에 질병이나 빈곤에 처한 신자들을 위한 기도회를 진행하여 신자들의 힘을 모아 당사자들의 고통이 용서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팀은 어려움에 처한 신자들을 정신적으로 구제해준다. 또한 매주 금요일 밤에는 이주노동자나 이주자들은 여유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회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모두가 자신의 고통과 관심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

재산관리팀의 일은 신자들에게 봉사할 현금을 관리하는 것이다. 매년 12월, 재산관리팀은 교회관리위원회에 지난해 현금의 사용처와 올해 현금 이용 목표를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교회 수리비, 헌물 구입비, 축일숭배 활동의 개최 비용, 빈곤하거나 아픈 신자들에 대한 구제비용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회는 고아를 부양하기도 하는데 지금도 4명의 고아를 맡고 있다. 그 중 두 명이 초등학생, 두 명이 보육원생이다. 또 교회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정비되어 있다. 또한 직원은 모두 천주교 신자이고 인도자는 신부와 수녀이다.

4. 조사 결과

첫째, 이타적 정신의 양성은 마을에서는 보상금 분배 문제나 땅을 잃은 사람의 생계유지 등의 문제에 대해 역할을 한다. 성중촌에서는 토지 수용에 따라 대량의 금전 보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이웃 간·가족 내 부자·형제 간에 어떻게 보상금을 분배할 것인가에 대해 모순이 발생해 인간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있다. 신자들은 기독교 교의를 준수하고 토지의 소유권을 놓고 가능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토지나 재산에 관해서는 다투지 않는다. 생계 유지가 어려운 신자에게 금전이나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돕기도 한다. 그것은 A천주교회는 5개의 팀을 통해 가족 내·교회 내라는 다른 장소와 신자들·신부 등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이타적인 정신을 다른 사람

에게 전하고 육성하여 양성하기도 하며, 신자들에게 상호부조·구제·이웃사랑·금욕 등의 이타주의라는 교의를 제공함으로써 신자들의 효도와 재산 균일 분배 등의 도덕규범을 양성하고 질서원칙도 유지 가능하다고 보인다. 즉, 신자들은 직접 무언가가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않으며, 언젠가는 당신이나 누군가 다른 사람이 답례를 해줄 것을 믿고, 지금 이것을 당신을 위해 해준다는 호수성 규범을 양성한다.

둘째, A교회는 신자들을 통합하는 역할을 가진다는 점이 시사되었다.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타 지역으로의 이주로 인해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위험이 있다. 그러나 A교회는 전통행사 개최팀을 통해 예배환경 개선, 교회 보존, 주일 예배 개최, 교양활동 전개 등의 활동을 함으로써 신자들의 신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 이 신앙 활동이 신자들의 일상생활에 미치고 있다. 구체적으로 A교회는 5개 팀을 통해 신자들이 같은 신앙과 세계관에 기반한 강한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신뢰·호수성의 기반이 되고 있어, 신자들이 함께하는 활동 참가를 촉진하고 여러 사람과 연결되는 원천이 될 수 있다. 즉 교회 내 신자들 간의 네트워크와 천주교 신앙이 결합되어 사회통합과 상조가 촉진된다. 신뢰관계·호수성·규범의식을 동반하는 네트워크에 포섭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천주교회와 지역 일반 주민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하다. 그것에 대해 소셜 캐피탈이 하나의 교단으로서의 배타성, 폐쇄성을 극복하고 교단 외부 사람에게 이타적·신뢰성·상호부조 등의 윤리관을 전해 나갈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일반 주민과 천주교회의 관계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片岡 えみ, 2014, 「信頼感と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寛容性」, 『駒澤大學文學部研究紀要』 (72).
- 山岸 俊男, 1998, 『信頼の構造—こころ社會の進化ゲーム』, 東京大學出版會.
- ロバート・パットナム, 2006, 『孤獨なボウリング—米國コミュニティの崩壊と再生』 柴内康文譯, 柏書房.
- Lozada, E. P. Jr. 2001, "God Aboveground: Catholic Church, Postsocialist State, and Transnational Processes in a Chinese." Village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 連 興楨, 2016, 「中國における都市化と「城中村」の開発：深「セン」の都市部を中心として」, 『海港都市研究』 11:3-19.
- 孫 琥瑋編, 2011, 『当代中國天主教本土化研究—太原教區与石家莊教區爲例』, 民族出版會.(中國語)
- 櫻井 義秀・濱田陽編, 2012, 『アジアの宗教と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 明石書店.
- 孫 立・大西 隆・城所 哲夫, 2011, 「中國都市における城中村再開發の實態に關する一考察—中國西安市を事例として」, 『都市計畫論文集』 46(3):469—474.

(번역책임자: 김예진)